



전남도-인천호남향우회, 신년 하례회

전남도는 최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오명석) 신년 하례회에서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100만 인천 향우가 새해를 맞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500여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64년 창립한 인천호남향우회는 향우를 한 마음으로 단결시킨 구심점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명석((주)엠에스오팜 대표) 인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은 "100만 향우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향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향우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후손에게 당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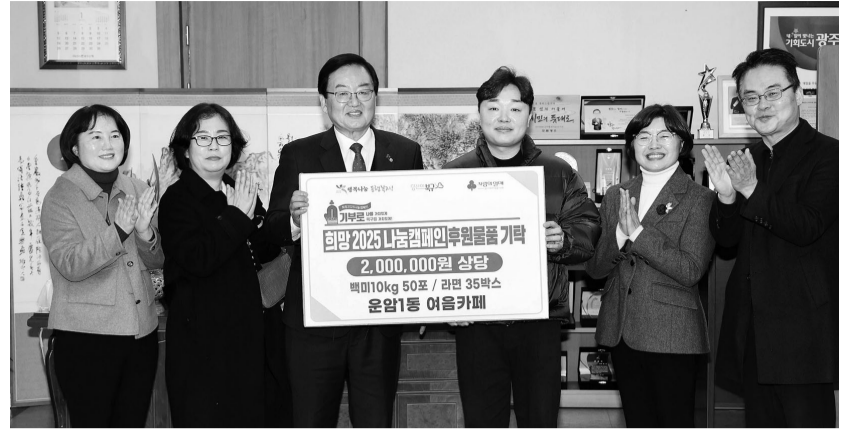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 정보공개평가 '최우수 기관'

전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사전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정보공개법 준수 등 4개 분야, 9개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정보공개 상시 수요조사 게시판을 신설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여음카페, 희망2025 나눔캠페인 참여 류연재(오른쪽 세번째) 여음카페 대표가 지난 10일 광주 북구청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돌봄이웃들을 위한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의 후원금 2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50포, 라면 35박스를 문인 북구청장에게 기탁했다. 광주 북구 제공



90세 이순재, KBS 연기대상 "오래 사니 이런 날도"

탤런트 이순재(90)가 'KBS 연기대상'을 안았다. (사진)

이순재는 11일 방송한 '2024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생애 첫 대상을 차지했다. 역대 최고령 수상자다. 이순재는 김용건과 백성현, 최수종의 부축을 받고 무대에 올랐다.

이순재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며 "KBS가 대한민국 방송 역사를 시작한 해가 1961년이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를 시작한 곳에서 활동하다 TBC로 건너갔다가 1980년에 돌아왔다. 많은 작품과 연이 닿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늘 기다리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아름답고 귀한 상을 받게 됐다. 60세 먹어도 잘하면 상을 주는 거다. 공로상이 아니다.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상은 개인의 상이 아니다. '개소리'는 소피를 비롯해 수많은 개가 나온다. 개들이 다 자기 몫을 했다. 거제까지 4시간 반씩 2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며 찍었다."

이순재는 "가천대 석좌교수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지도한다"면서 "작품을 정해서 한 학기 동안 연습해 기말에 발표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더라. 학생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난 교수 자격이 없다'"

고 했다. 학생들이 '염려 마십시오. 가르쳐 주신대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왔다. 그 학생들을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늘의 결과가 온 것 같다"며 울컥했다.

개소리는 경찰청 출신 '소피'와 함께 그리는 노년 성장기다. 극중 이순재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이순재'를 맡았다.

이날 이순재는 권경배우 아리, 그룹 '모모랜드' 출신 연우와 베스트커플상도 받았다. MC 장성규는 "한국방송역사상 개와 사람이 베스트커플상을 받은 건 최초일 것"이라며 놀랐다. 이순재는 "요즘 한국 가정에 2/3는 개와 사람이 커플이더라. 상당히 익숙해진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드라마로는 처음"이라며 "외화에서 두어번 본 적 있어서 '소재가 되겠다'고 했는데, '소피'(아리)는 전적으로 주연을 했다. 이 친구들 역량이 없었으면 내가 짓을 뻔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개소리를 집필한 변숙경은) 젊은 작가인데, (소설가) 야가사 크리스티의 미스터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만큼 재능이 있더라. 여기 참여한 모든 배우들이 개소리는 이색적인 작품이라서 '뭔가 한번 해보자'고 했다"며 "상 타려고 한 사람은 없다. 이 작품엔 주·조연도 없다. 한 파트, 한 파트 전부 주연"이라고 치켜세웠다. 뉴시스



글로벌광주방송, 오니온에이아이와 MOU

글로벌광주방송(GGN)이 인공지능(AI) 자동 번역·더빙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한 청취자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진)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GGN글로벌광주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전시회인 'CES 2025'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에서 AI 자동 번역·더빙 솔루션기업인 ㈜오니온에이아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과 김홍국 오니온에이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제작과 유통 방식을 혁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AI 자동 번역·더빙기술 도입, 네트워크환경 조성·기술 지원, 다국어 콘텐츠 제작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홍국 오니온에이아이 대표는 "언어장벽을 허물고 다국어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대한적십자사, '캠코도서관' 43호점 개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9일 목포에 위치한 너랑나랑 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리리 43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캠코브리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도서관'의 합성어로, 지역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습문화 개선 및 정서함양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캠코와 협력해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보호 시설에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부산지역 한솔아동복지시설 1호 캠코브리리 개소를 시작으로 이번에 43호점 개소를 맞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5년간 도서 구입, 독서지도, 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하재성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되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현대차,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 개관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전용 전시 공간인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을 개관했다. (사진)

12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부산시 수영구에 총 410㎡(약 124평) 규모로 조성된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은 비대면으로 고객이 차량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전시 공간이다.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은 지난해 3월 개관한 '캐스퍼 스튜디오 오송파'에 이은 두번째 캐스퍼 전용 스튜디오로 △미디어월 및 전시존 △캐스퍼 커넥트 존 △프라이빗 부스 존을 갖췄으며, 특히 △비대면 시승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고객 체험 요소를 적극 확대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여대, 마음경영지도사 보수교육 성료

광주여자대학교 마음(MAUM)교육원은 지난 7일 순창군 쉼랜드(SHILLAND)에서 2025년 마음경영지도사 보수교육 연수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마음경영지도사 자격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휴·메디푸드 웰에이징 in 순창 힐링연수'를 주제로 △힐링요가&명상 △메디푸드 체험 △원에 테라피 △허브족욕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김경화 광주여대 마음교육원장은 "보수교육에 참여한 마음경영지도사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전문가로 활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신현준, 김수미 추모 "하늘나라서 외롭지 않길" 울컥

배우 신현준(사진)이 김수미(김영옥·1949~2024)를 추모했다.

신현준은 11일 방송한 '2024 KBS 연기대상'에서 '다리미 패밀리'로 우수상 수상 후 고인을 애도했다. "다리미 패밀리를 찍을 때 사랑하는 김수미 어머니가 소천했다"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해줬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부디 외롭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계셨으면 한다"며 울컥



했다. 김수미는 지난해 10월25일 고혈당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신현준은 김수미와 영화 '가문의 영광' 시리즈, '맨발의 기봉이' 등에서 호흡을 맞췄다. 고인 유작인 '귀신경찰'에서도 모자 관계로 함께 했으며,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